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 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3. 15. (수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5690)	담 당 자	조아라 사무관(044-203-5694)

산업부, 대중(對中) 투자·수출 기업 대상 한중통상민관협의회 개최

- 대중(對中) 통상 관련 우리기업 애로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**3. 15.(수)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**로 **한중통상민관협의회**를 열어, **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**을 대상으로 **중국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점검**하고 **대응방안**을 논의했다.

< 한중통상민관협의회 개요 >

- **일시·장소:** '17.3.15(수) 오후, 서울
- **참석자:** 대중(**對中**) 투자·수출 기업,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
- **주요내용:** 중국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점검

□ 참석 기업은 최근 중국내 상황 관련 **통상·투자 분야 애로사항을 제기**하며, **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.**

○ 특히 최근 중국의 **기업 조사 증가 및 통관·검역 강화**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, **중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 가능성**도 말했다.

○ 비관세장벽·수입규제에 대한 **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**과, **실제 피해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**도 요청했다.

□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제기한 **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고,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**하겠다고 말했다.

① **(애로접수)** 그간 **한중통상점검 특별팀(TF)**을 9차례 열고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**중국 진출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, 즉시 해결하는 체제(시스템)을 구축해 지원**

○ 무역협회 내에 **'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**(☏1380)'를 설치하여 **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**하고 **현장방문 컨설팅, 상담** 등을 제공

○ 추가로 **'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'를 개소**(3.21예정, 무협內)하여, 관련 **외국법령 교육·설명회, 컨설팅 등 지원**을 보다 강화

○ 아울러, '**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**' 운영을 강화하고, 신청 기업에게 **최대 5천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** 등을 지원

② **(대중(對中)협의)** 또한, **그간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**에 대해 **양자·다자 채널**을 통해 **적극적으로 문제제기** 해왔으며, 앞으로도 **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이의제기**하겠다는 설명하고,

* 한중 FTA 공동위(1.13) 등 통상채널을 통해 애로를 지속 제기하였으며, 최근 한중 FTA 접촉선을 통해 관광·유통 분야 중국측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서한을 송부한 바 있음(3.10)

- 더불어, 중국측 일련의 조치가 **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및 세계무역기구(WTO)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**하고 **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**하겠다고 말했다.

③ **(사전예방) 중국의 강화된 법령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**하기 위해 대중 진출기업 및 관심기업 등을 대상으로 **中 법규 교육·컨설팅** 등 정보제공, **해외인증 획득비용** 지원 및 **인증규격 등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** 등을 지원

* 해외 기술무역장벽(TBT) 전국 순회 설명회(국표원·중기청 합동, 2. 27.-3.10.) 등

* 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('17년 106억 원)을 통해 기업당 총 비용의 최대 70%를 지원, 무역환경변화대응 R&D사업('17년 79억 원)을 통해 중국 인증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 지원

④ **(자금지원)** 아울러, **피해기업 지원**을 위해 **범정부 차원에서 4,000억 원의 자금 지원방안**을 마련하여 **경영 안정화**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- **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**을 **750억 원에서 1,250억 원으로 확대**하고, **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운영자금**도 **700억 원에서 1,200억 원으로 확대**할 예정이며, **금융위원회에서도 2,000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**을 통해 보호무역 피해기업, 관광업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  * (중기청)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(최대 10억원/5년간[2년 거치], '17년 1,250억 원)
  (문체부) 관광기금 특별융자(최대 20억원/2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, '17년 1,200억 원)
  (금융위) 정책금융기관·시중은행 통한 만기연장(1년), 신규대출('17년 2,000억 원) 지원

□ **보다 근본적으로는**, 대중(對中) **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**이 중국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아세안(ASEAN), **인도** 등으로 **신규판로를 개척**하는 경우, **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다변화를 적극 추진** 한다.

○ 이를 위해, **해외전시회, 지사화 사업** 등을 지원시 중국 수출 애로 기업에 **가점을 부여해 우선 선발**하고, **세계시장 개척 전문기업**(중기청)도 **신흥시장 중심으로 모집할** 계획이다.

○ 한편,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(ASEAN)·인도 등 **대체시장**에 대한 수출 상담회 개최,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**대폭 확대(125건→166건, 30%이상)**하고, **이들 지역에 대한 별도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 신설**을 검토하기로 했다.

□ 주 장관은 "오늘과 같은 기업 간담회 자리를 통해 **대중(對中) 통상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철저히 파악**하고, 이를 토대로 **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.**"라고 말하고,

○ "**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중국에 적극 이의를 제기**하는 한편, 대중(對中) **협력 및 소통의 끈도 놓지 않고 지속**해, 중국 진출 **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**"라고 강조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조아라 사무관(☎044-203-56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